

# 절대감사와 절대순종으로 현장을 살린 에스더

## - 복음으로 여는 에스더 -

에스더4:13-17, 히브리서13:17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속아 죄에 빠져서 이 땅에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참 세상장, 참 선지자, 참 왕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주시고 이제 237나라까지 살릴 비전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램넛트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를 향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고 치유를 얻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지금도 인간자, 대적자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속이고 있다. 사탄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유있는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한다. 가정, 학교, 부부관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시작이 강단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누구의 말을 잘 듣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에스더서 말씀을 통하여 절대 감사와 절대순종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에스더서는 부림절의 유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부림절은 민족이 멸종하려던 날이 대적을 멸망시키는 날로 변했던 날이다. 부림이라는 것은 제비를 뽑았다는 뜻이다.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그 날을 뽑았다. 하지만 저주의 날이 축복의 날로 변했던 것이다. 오직 예수로 결론 내는 순간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결론내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게 된다.

에스더서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절대감사와 절대순종으로 당시 인도부터 아프리카의 구스까지 지배하던 페르시아와 유대민족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았다.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은 것이다.

### 1. 첫 번째로, 에스더서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고레스 왕에서 에스더까지의 세계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하고자 한다.

(1) 고레스에서 아하수에로 왕까지이다.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페르시아제국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이다. 고레스 왕은 강력했던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었고, 바벨론에 의해 수십 년간 포

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왕으로도 유명하다. 고레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인물이 아다사스다(캄비세스)이고, 아다사스다(캄비세스)왕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제국을 크게 확장시킨 인물이 다리오(다리우스)왕이다. 다리오 왕은 그리스와 두 차례 전쟁을 치른 왕으로 유명하고 그 두 번째 전쟁이 마라톤 전쟁(2차 페르시아전쟁)이다.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오늘 에스더서 1장부터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을 일반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왕은 아버지인 다리오 왕이 실패한 그리스 정복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던 인물로도 유명하다.

(2) 성전재건의 역사와 세 번의 귀환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겠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예루살렘성전의 재건이 시작되었다.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재건을 지휘했던 인물은 스룹바벨이었다.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인물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다. 말씀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주도했다. 그리고 3차에 귀환하여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재건을 완성한 인물은 느헤미아였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바로 전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의 계약으로부터 구출하였다. 즉,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2차, 3차에 걸쳐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 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세 번째 침공한 제 3차 페르시아전쟁(살라미스 해전)을 전후로 한 시기에 발생한 약 10년(와스디 왕후의 폐위에서 부림절 제정까지)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 역사의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BC. 492년 1차 페르시아전쟁(300척 침몰), BC.490년 2차 페르시아전쟁(마라톤전쟁, 아테네승리), BC.483년 180일간의 잔치(와스디 왕후 폐위), BC.480년 3차 페르시아전쟁(살라미스해전 패배), BC.478년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 BC. 458년 2차 포로귀환(에스라 인도)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에스더서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 세계의 역사는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에스더와 같은 램넛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 2. 두 번째에서는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에스더서는 내용 전체가 이야기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3년에 127도의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이 잔치는 약 2년 후(BC.480년)에 있을 그리스와의 3차 페르시아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파티였다고 보고 있다. 이 때,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 와스디를 불렀지만 와스디 왕후는 왕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와스디 왕후는 폐위가 되었고, 뒤를 이어 모르드개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페르시아 제국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깊은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고관들은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유독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개였다. 하만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모르드개가 유대민족임을 알고 모르드개 뿐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고자하는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허락까지 받고 전국에 공포하였다. 이 때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하여 유대민족을 구할 것을 전달하였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겠다.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

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다.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온 에스더에게 왕은 금홍(금규)을 내밀어 에스더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한다. 이 때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만 잔치에 청하게 된다. 그날 밤, 아하수어로 왕은 웬지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일기를 읽던 중 모르드개가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고발하여 왕을 구한 장면을 읽게 된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한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다음날, 왕은 모르드개에게 어떠한 상을 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모르드개를 20m의 장대에 달아 죽이고자 하는 허락을 받기 위해 왕 궁정 뜰에 와 있는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다. 하만은 결국 자신이 말한 것처럼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개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고 하만 자신이 말을 끌고 가면서 왕에게 존귀함을 입은 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큰소리고 외치고 돌아온다. 하만은 이 사건 후 다시 에스더가 준비한 만찬에 참여하였다. 이 때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왕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에스더 7장 5절이다. '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 때 에스더는 다음과 같이 왕에게 말한다. 그 내용이 에스더 7장 6절이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결국 하만은 죽고, 유대 민족은 멸망을 받기로 한 제비뽑은 날, 부림일에 구원을 받게 되어 그날을 부림절이라 부르고 지금도 유대 민족은 부림절을 가장 성대한 명절로 지키고 있다. 이 날은 구원의 날이다. 복음시대의 구원의 날은 '부활절'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세 번째에서는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들이 붙잡을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1) 에스더가 포로현장에서 누린 절대감사이다.

① 에스더는 가정문제 앞에서 절대감사를 보여주었다. 에스더는 어려서 부터 부모님 없이 자란 고아였다. 과거문제로 상처 있는가? 감사가 없어서 그런다. 감사로 치유 받으시기 바란다. 그러나 에스더의 영적상태는 절대감사였다. 에스더서 2장 7절 말씀을 보겠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② 환경 앞에서 감사하였다. 에스더는 포로, 속국 출신의 후대였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③ 램넛트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결국 에스더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받았다. 에스더의 영향으로 그 다음 왕 시대에 활동했던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씀회복과 성전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다.

④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였다. 그러다가 왕비가 되었고 민족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까지 받았다.

⑤ 에스더는 말씀으로 양육해주신 모르드개를 붙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다락방을 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을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에스더는 까다로운 성격의 모르드개를 다락방과 지교회 양육자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2) 에스더는 절대순종의 램넛트였다.

① 결혼에 대해 절대순종하였다. 자신의 정욕대로 연애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의 결정에 절대순종하였다.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아야 한다.

② 전도운동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절대순종하였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의 부르심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부탁을 받고 삼일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갔다. 그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이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이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3) 에스더의 조급하지 않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배워야 하겠다. 에스더는 깊은 기도를 누렸고, 서밋타임을 가졌고, 성령인도를 받았고, 9포인트 체질화되었고, 미리 보았던 인물이다. 에스더는 왕에게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두 번이나 왕과 하만을 자신의 궁의 잔치에 초대하였다.

(4) 모르드개의 강직하고 변함없는 모습도 배워야 하겠다. 그는 비굴하게 권력자들에게 이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지기라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였다. 에스더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어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결국 그는 하만을 대신하여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스더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과 복음과 미션을 드리코자 한다.

1. 사탄은 지금도 하만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램넛트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종시키려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모르드개의 램넛트 다락방과 지교회의 중요성이다. 한 사람만 정확한 언약과 복음을 알고 있으면 전체를 살릴 수 있다. 그 한 명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
3.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교만하거나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지속하다가 천부장의 응답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때 237과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응답도 따라올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절대감사와 절대순종으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램넛트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에스더서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으니 성도들과 후대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개처럼 어떤 환경에서든 성령인도 받게 하시고 거기서 전도자로 빛을 발하며,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